터키, 총선일 확정으로 정국 수습

조기총선일 확정, EU가입 조정안 통과 확실시

터키 의회는 449-62 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오는 11월 3일에 총선을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조기총선에 반대한 당은 뷜렌트 에제빗 총리의 민주사회당(DSP)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선일이 관보에 공고되면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교통부, 내무부, 법무부 장관이 교체될 예정이다.

또한 EU 가입 협상을 위하여 터키의 제도를 조정하는 14개 항목의 EU가입 조정안은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곧 본회의 의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조정안은 본회의가 승인하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하게 된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부수상 바젤리의 민족주의행동당(MHP)만 반대하고 있어 의회의 통과가 확실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이행 약속

정국 일정이 확정되어 가는 속에 집권 3당 당수들은 8월 5일 IMF의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는 보충의향서(supplementary letter of intent)에 서명하였다. 정계는 경제구조 조정을 지휘해온 경제부 장관 데르비슈의 각료직 보지와 함께 이로써 터키 시장의 불안을 키워온 IMF 경제계획의 불이행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충의향서는 8월 7일과 8일에 열릴 IMF이사회로 송부되며 IMF는 13억 달러의 제3차 대기성차관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아가

정국의 안정에 따라 8월 5일의 금융시장은 한 달여만에 리라/달러 환율은 처음으로 1,629천 아래로 떨어졌고 90일물 국채수익률도 60%로 낮아졌으며,

이스탄불 주가지수(ISE100)도 상승하여 10639를 기록하였다.

선임연구원 강준수(☎3779-6645)
E-mail: jkang@koreaexim.go.kr